

▶ 가족·아동

귀농유형별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

박 공 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연구실장)

김 양 희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박 정 윤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윤 순 덕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연구원)

본 연구는 도시 은퇴자들의 농촌이주 후 성공적으로 농촌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귀농유형별로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이주한 은퇴자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농촌이주 준비과정 및 농촌이주 적응과정에서 각각 관련되는 변수들을 설정하고, 이들이 귀농유형(U턴, J턴, I턴형)별로 귀농자의 생활만족도에 어떠한 차이점이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조사는 전국 70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 귀농자 408명을 대상으로 2004년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에 걸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70개 시군에 거주하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은퇴 후 귀농인의 사회 인구학적 변인, 농촌이주 준비과정과 농촌이주 적응과정에서 관련된 변인들은 귀농유형에 따라 다른 관련성을 보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관련변인에 따라 귀농유형별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의 차이 결과를 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농촌생활만족도의 차이는 U, J, I턴 세유형에서 건강상태가 공통적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귀농의 가장 기본요인이 건강임을 알 수 있다. 농촌이주 동기에 따른 농촌생활만족도의 차이 결과, U턴형은 이주계기와 농촌이주 결심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 J턴, I턴형은 별 차이가 없었다. 농촌경험 정도에 따른 농촌생활만족도의 차이를 보면, 농촌에 거주한 경험이 있는 U턴형과 J턴형은 이러한 경험이 농촌생활 적응에 큰 효과를 갖지 못했으나, I턴형은 농촌에 대한 경험이 있을 때 영농생활 및 주거상태의 만족도가 높아짐을 볼 때 농촌경험과 영농체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귀농유형별 농촌이주 준비정도에 따른 농촌생활만족도의 차이에서, U턴형, J턴형, I턴형 모두 이주준비를 하는 것이 하지않는 것보다 농촌생활적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유형별 사회적지원망 정도에 따른 생활만족의 차이는, U턴형의 경우 이웃으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고, 이웃과의 관계향상 노력을 많이 할수록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으며, J턴, I턴형은 '이웃의 도움정도'와 농촌생활만족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 특성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이웃과의 관계향상 노력정도'는 관련변인들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귀농유형별 농촌생활 인식수준에 따른 농촌생활만족도와 상관관계의 결과, U턴형은 경제문제 인식정도가 상관관계가 있는 변수로 지적된 반면에 J턴형과 I턴형의 경우는 정서적 문제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U턴형 귀농인들이 가진 귀농 전 도시생활에서 직장생활경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농사일 등 기존 사회생활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건강한 도시은퇴자의 빠른 농촌생활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은퇴인구의 농촌유입으로 도시와 농촌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